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손해보험재팬과 니혼고아손보, 통합 계약서 체결

□ 손해보험재팬(損保ジャパン)과 니혼고아손해보험(日本興亜損害保険)은 내년 4월 경영 통합에 합의하는 최종 계약서를 7월 29일 체결함.

- 두 회사는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 이름을 영문 이니셜을 따서 'NKSJ 홀딩스'로 명명하고 통합비율은 손해보험재팬과 니혼고아손보가 각각 1.0 : 0.9로 하며, 6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12명의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통합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연말에 열리는 각 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기로 함.
- 이번 통합 계획의 핵심은 두 회사가 거의 대등하게 지분을 투자해 새로운 주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으로, 업계에서는 주가나 수입보험료 규모(손해보험재팬이 니혼고아손해보험에 비해 약 2배가 큼)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조건이 대등할 수 있었던 것은 손해보험재팬에 결국 흡수·통합되는 것이 아니냐는 니혼고아손해보험 내부 직원과 주주들의 우려가 크게 고려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
□ 두 회사는 이번 통합으로 연간 약 300억엔의 추가 이익과 자산운용 및 해외 사업 분야에서 통합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.

- 통합 후 3년 정도는 연평균 55억엔 정도의 일시적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상품 및 사무·시스템 통합, 인프라 공동 사용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약 175억엔,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한 수익 향상이 약 105억엔이 예상되는 등 2012년에 연간 약 300억엔 규모의 이익(세전)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음.
- 또한 두 회사는 생명보험 자회사인 손해보험재팬해바라기생명과 니혼고아생명의 합병을 유도해 보험그룹으로서의 경영 일원화를 도모하는 한편, 자산운용 및 해외 사업에서도 운용수익 향상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 다각화와 같은 통합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.

(로이터 · FujiSankei Business I, 7/29)